

# “기준 따라 간판 달면 되레 손해”

### 광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만 해놓고 단속·처벌 뒷집

#### 강제 이행금 부과 10% 불과... 불법 광고물 난무

광주시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정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말쑥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특정구역 지정 이후 단속 미흡으로 기준에 벗어난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고, 단속에 적발돼도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전체의 10%에 머물고 있다.

26일 광주시 일선 구청에 따르면시는 지난 2004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창택지개발지구(124만4천781㎡, 신창·신가동 일대)와 동림2단지개발지구(60만3천646㎡, 서구 유촌동·북구 운암·동림동 일대), 제12양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74만7천896.9㎡, 양산·분촌동 일대)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가로 간판은 층과 층 사이의 창문 간 벽면 높이의 70%, 최대 1.2m 이내 ▲돌출 간판은 높이 4m·폭 1.2m 이내(벽면으로부터) ▲배탕색은 적색과 흑색의 사용 비율을 표시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하지만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시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구 양산사업지구에는 업소마다 돌출 간판이 밀치러지고 있고 가로간판도 사용 비율이 표시면적(70% 이내)을 넘는 등 옥외광고 간판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다.

서구 유촌동 일대의 간판은 바탕색

이 적색과 흑색의 사용 비율을 표시면적 이상으로 설치해 자극적 디자인과 색상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 특정구역은 상가, 음식점,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조성되고 있는 신도심으로 조성 초기 해당 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해 이를 잘 지켰다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와 일선 구청의 무관심 속에 특정구역 내에선 불법 광고

물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구역의 소극적인 단속은 업체간 불법 광고물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고정광고물 단속건수는 ▲동구 760건 ▲서구 775건 ▲남구 842건 ▲북구 279건 ▲광산구 438건 등 3천403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전체의 10.6%인 324건(7천972만원)에 불과하다.

양산지구 내 한 식당 주인은 “시에 지정된 대로 간판을 설치했는데, 다른 업소는 이 같은 기준을 어기고

있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며 “조만간 간판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시 기준대로 간판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제20조의 2 이행강제금)상 간판 표시제한 사항을 어겼을 때 한 차례 계도 후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양산동 양산지구 상가 건물이 옥외광고물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다. 이 일대는 광주시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교통약자 전용택시 9월부터 달린다

#### 시, 8대 운행...장애인 등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의 35% 수준

오는 9월부터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 일반택시 요금의 35%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전용택시가 광주시내에서 운행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8월 중 (사)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한다.

광주시는 29일 “오는 10월 초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에 앞서 9월부터 장애인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택시 8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전용택시는 휠체어를 이용

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리프트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용 대상은 1, 2급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 등이며 이용요금은 일반(중형) 택시 요금의 35% 수준이다.

시는 이 택시를 운영할 '사단법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광주시 북구 일곡동 광주전남교통연수원내에 설립해 전용택시 운영관리와 이용신청 접수, 이동편의 정보 제공 등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센터에서는 센터장과 사무원, 운전원, 폴요원 등 12명이 근무하게 되며 법인은 8월 중 설립돼 9월에 개원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택시를 2015년까지 매년 10대씩 모두 8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유치원평가 나선다 평가위 구성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자율화 이양사업의 일환인 유치원 평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을 1주기로 하며, 2주기 평가는 1주기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시교육청은 29일 발표한 '유치원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평가는 ▲교육과정(65점) ▲교육환경(45점) ▲건강·안전(40점) ▲운영관리(40점) ▲종일반 운영(15점) ▲역점시책·문화예술 교육 활성화(15점) 등 6개 영역, 18개 항목, 33개 지표로 세부화해 진행된다.

개별 유치원의 자체평가 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이어진다.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장학지도 자료로 쓰인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원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우치동물원 코끼리 공연 보러 오세요

광주 우치동물원에서도 코끼리를 볼 수 있게 됐다.

29일 광주시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그동안 코끼리 입식을 추진했다가 번번이 무산(본보 7월18일자 10면)됨에 따라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는 전사·공연 운영업체 공모를 통해 ㈜코끼리월드와 1년간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우치동물원이 코끼리 막사와 트레킹 장소를 제공하고 (주)코끼리월드는 관람객들에게 코끼리를 보여주고 코끼리 타기, 사진촬영 등으로 벌여 들인 수익금의 20%를 동물원 측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코끼리 9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코끼리월드는 이

르면 다음달 조련된 코끼리 3마리를 우선 들여와 적응 기간을 거친 뒤 공연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동물원 내 코끼리 사육시설 확장공사를 벌인 뒤 나머지 코끼리도 조만간 들여올 것으로 알려졌다.

우치동물원은 2004년부터 코끼리 입식을 추진해 왔으나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된 코끼리 수입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처럼 코끼리 입식이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자 동물원 측은 코끼리를 보유한 민간업체에 사육 시설을 빌려주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응이 쉬운 조련된 코끼리를 들여 오게 됐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행락지 식품업소 위생점검

광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한 달동안 무등산장과 증심사, 유원지 주변 식품업소에 대해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분야는 ▲원재료·음식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위생 관리 ▲유통기한 적합 여부 ▲가격표 게시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다.

김밥과 샌드위치 등 변질 우려가 많은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행락지 주변 부점·불량식품 판매업소는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송산유원지 등 9곳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 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송산유원지 등 9곳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수상구조대는 수난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수상구조대원 5명과 NGO 회원, 대학(원)생, 의용소방대원 등 모두 18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놀이객 안전지도 및 구조 활동, 상시 응급처치 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지난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인명구조 1명, 안전지도 2천341명, 미아찾기 2명, 안전조치 121명 등의 봉사활동 실적을 올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시 '시민대상' 후보자 공모

### 5개 분야 내달말까지

광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2008년도 광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시민대상은 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경제진흥 등 5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각종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 공적증명서류 등이다.

수상자는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11월 1일 제43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광주시는 1987년부터 시민대상을 수여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사회봉사 21명, 학술 18명, 예술 17명, 체육 16명, 지역경제진흥 18명, 특별상 2명 등 모두 92명이 상을 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여성발전센터 동화구연지도사 강좌 개설

광주시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취입이 어려운 주부 및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동화구연지도사'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강좌는 다음달 25일부터 9월12일 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

부터 4시간동안 총 60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발전센터 교육팀(062-383-5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할부식 판매서비스 - 월평균 50,000원~60,000원대(무이자 36회 까지)

**보상판매실시** 온돌침대를 구입 시 현재 사용하는 침대(메트리스)를 보상판매

(원가 50,000원~70,000원대 2만 원당 현금보상 8000~10,000원)

- ▶국내 최대 최초로 온돌도 현금보상판매를 할부식 판매에 도입합니다.
- ▶물놀이 승무비도 가격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3년후 개인소유에 이관되고 할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tnugood.com

**축 OPEN 기념** TEL: 062)961-9994

# ANYCHE CHAIR

**Anyche** 기술과 민첩을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유연한시책

www.anchechair.com